

이러니...경찰 불신 커진다

광주경찰 기획·특별 단속 실적 경쟁 부작용 잇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종 기획·특별 단속으로 실적 경쟁에 매달려 사건을 부풀리는가 하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다며 소극적인 수사를 벌였다가 끝내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허술함도 드러났다.

치안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교통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미흡,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풀리고=광주북부경찰은 최근 광주시 북구 유흥가에서 차량 30여대를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43)씨를 긴급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모두 36건의 주차된 차량에서 7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이 닫힌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본 데 대해서도 절도 미수 혐의를 적용,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훔칠 생각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도한 만큼 절도 미수"라는 게 경찰 판단이지만 지나치게 공범위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늦은 밤, 지나가며 주차된 차량의 문고리를 슬쩍 잡아당겨 본 사람을 모두 절도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붙잡을 것이냐"는 비판이다.

경찰이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강·절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한 뒤 '특진'을 걸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허술하고=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께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J저수지에서 기모(7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에 집



실적 부풀리고
차량털이범 36건 적발
차 문 잡아당긴 것까지
절도 미수 혐의 포함

수사 허술하고
70대 노인 가출 신고
단순 가출 판단 소극적
50일만에 숨진채 발견

단속 어이없고
불법주차 아랑곳않고
야간 신호위반 함정단속
시민들, 교통정책 비난

을 나가 실종된 지 50여일이다. 당시 경찰은 가출 신고를 접수받은 뒤에도 단순 가출로 판단, 소극적 수사를 진행하다 뒤늦게 헬기·수색견 등을 투입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끝내 기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또 18세 이상 성인, 치매 노인인 대한 가출 신고의 경우 신고 24시간 이후 해당 경찰서 실종수사건

담팀 등으로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마저 생략했다. 적극적인 초동 수사에 나서 목격자나 동선 파악 등 좀 더 빠르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용통성도, 일관성도 없고=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신호위반'이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가장 많이 꼽힌 데 주목,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장, 신호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9~15일 1183건에서 1주일 뒤인 16~22일에는 1408건으로 300건이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숨어있다가(함정단속)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시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 문화전당에서 동구청 방면 구간의 경우 대표적 함정 단속 지역으로 꼽힌다. 야간 시각, 4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가득 메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신호 위반하기를 기다렸다가 뛰어나와 단속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다.

전년도의 19배가 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였던 지난해와 다른 '일관성' 없는 교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관할 지역 선긋기=경찰청의 '장래업체 비리 특별 단속 계획'에 따른 실적 경쟁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광주광산·서부경찰의 장례식장 수사가 대표적으로, 똑같은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벌이면서 광주광산경찰은 조화를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장례식장측의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낸 반면, 서부경찰은 조화를 공급하는 화해업자를 검거하는 데 머물렀다. 경찰서끼리 해당 업체들을 수사하면서 인력, 관할 지역을 따지며 혐의 적용 과정에서 '선긋기'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보육교직원들 “영아 사랑” 다짐

광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는 지난29일 광주 보건대학 대강당에서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 직무연수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영아보육료 인상과 영아에게 무한한 사랑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책임 통감”사표

허재호 전 회장 “해외 빼돌린 재산 없다”

광주지검 오늘 대책회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13일 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44일 만으로, 대법원은 조만간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장 법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할

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허재호 전 대구그룹 회장은 29일 새벽 검찰의 소환 조사 뒤 광주

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해외 도피자금이 있는지, 벌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모두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고 일부 못 낸 것은 개인재산을 팔아서 회사(대주건설)에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그 돈을 돌려받는다면 벌금을 내고도 남을 텐데 회사가 어려워져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역형이 중단돼 석방된 뒤

뉴질랜드 기업 지분의 명목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5일 신청했는데 우연히 그 날짜에 변경된 것”이라며 “해당 회사는 재산, 실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다음주에 명의를 원상회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없다”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기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허재호 전 대구그룹 회장의 재산을 찾아나선 관계 기관들이 다시 모인다. 광주지검은 31일 오전 11시 광주지검에서 허 전 회장 벌금·세금 징수 관련 2차 기관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참석 기관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경찰, 교사 폭력·도박 사건 수사 착수

학부모연합 고발 따라

광주의 한 특성화고교 교사의 폭력·도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은 K고에서 발생한

교사의 교장 폭행·도박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교사의 폭행·도박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실

로 확인되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학교 교장과 여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변심 내연녀 흥기 살해

화순경찰, 40대 구속

화순경찰은 30일 변심한 내연녀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 50분께 화순군 화순읍

의 한 호프집에서 A(여·42)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흥기로 A씨의 목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간 교제해온 사이로, 김씨는 최근 내연관계인 A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초등생 장난삼아 자기 손목 수갑 채웠다 못 풀어 한바탕 소동



○장난삼아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10대 초등학생이 수갑을 풀지 못해 경찰서를 찾는 등 한바탕 소동.

○30일 조모(11·북포 초 5학년)양은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께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에서 남동생(6)과 놀던 중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으나 열쇠를 찾지못해 연동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조양은 모 경비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아버지의 수갑을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는데, 목포소방서 119 구급대원은 연동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4시간 만에 수갑을 해체.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수기동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방2, 거실)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